



# 영산강, 문학에 스미다

### 영산강 문학 심포지엄 30일 광주시립민속박물관서 열려

#### 생오지문예창작촌 주최

#### 역사·인문·문학적 의미 탐색

영산강은 전라도 사람들의 한과 희망이 스민 강이다. 그곳에는 슬픔과 기쁨, 절망과 희망, 빛과 그림자가 흐른다. 개화와 수탈의 통로인 동시에 위안과 치유의 강이기도 하다.

영산강이 전라도의 힘이자 상상력과 창조 의 근원인 까닭이다. 지금까지 많은 문인들은 영산강을 소재로 남도 특유의 웅숭깊은 문학을 형성해왔다.

조선시대 백호, 송순, 김인후, 박순, 고경명에서부터 근현대의 박화성, 오유권, 문병란, 송영, 문순태, 나해철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인들이 영산강을 모태로 빛나는 작품을 남겼다.

근래에 영산강의 인문학적 가치와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록 4대강 공사 후유증으로 여전히 심한 물살을 앓고 있지만, 영산강이 남도인에게 상기하는 의미와 가치는 남다르다.

영산강을 문학적으로 조명하고, 역사적·사회적 의미를 탐색하는 심포지엄 '영산강, 문학에 스미다'가 열린다. (재)생오지문예창작촌(대표 문순태)이 주관하고 문예창작대학이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으로 열리는 영산강 문학 심포지엄이 30일(오후 12시30분~4시30분) 광주시립민속박물관 1층 다목적실에서 열린다.

'영산강 문학의 길을 묻다'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문학 심포지엄에서는 남도인과 함께 했던 영산강의 역사, 영산강을 소재로 한 다양한 문학, 그리고 인문학적 의미 등이 폭넓게 다뤄진다.



국립민속박물관

1부에서는 TV드라마로 방영됐던 '타오르는 강'(원작 문순태·1989년 mbc창사특집극) 상영이 있을 예정이다. 대하소설 '타오르는 강'은 소설가 문순태가 남주 영산강 일대를 중심으로 써내려간 민초들의 생생한 삶의 보고서이자 남도 문학사에 빛나는 역작이다.

2부에서는 제1회 창작촌 청소년문학상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 한국 문학을 짚어지고 나갈 청소년들과 문학을 매개로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3부에서는 심포지엄의 핵심 주제인 '영산강'에 대한 다양한 고찰이 이루어진다. 모두 세 가지 주제로 이루어질 심포지엄은 연구자와 작가 문순태가 나서 영산강을 매개로 학술적 의미, 문학적 상징 등을 이야기한다.

제1주제는 박일우 박사가 '기억을 재구성하는 세 개의 방법-영산강 모티브 문학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영산강 문

학'과 확장 가능성 등을 타진한다. 특히 영산강을 모티브로 차용한 작품에 내재하는 역사적·사회적 갈등을 조망한다.

제2주제는 조은숙 박사가 "타오르는 강"에 나타난 영산강의 의미"를 바탕으로 영산강의 강물 소리에 초점을 맞춘다.

제3주제는 저자와 함께 하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작가 문순태와 함께 '타오르는 강에 대하여'를 주제로 창작 배경, 역사적 맥락, 취재 뒷이야기 등을 나눌 예정이다.

한편 생오지문예창작촌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매년 '영산강, 문학의 길을 묻다'를 개최하고 영산강을 통해 새로운 인문적 가치와 삶의 길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1월에는 작가와 함께 떠나는 영산강 문학 답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061-381-2405.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오페라 아리아의 향연



## 광주여성필하모닉 '오페라의 순간들'

### 31일 광산문화회관

유명 오페라 아리아를 만날 수 있는 연주회가 열린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선정 단체인 광주여성필하모닉이 특별한 무대 '오페라의 순간들'을 마련했다. 31일 오후 5시30분 광산문화회관.

이번 공연에서는 현재 비엔나 한인오페라단 상임지휘자 겸 예술감독으로 활동중인 박승유씨가 지휘와 해설을 맡았으며 총연출은 김유정씨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로시니의 '도독까지' 서곡으로 문을 여는 이번 공연의 레퍼토리는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 중 '어떤 개인 날', 베르디의 '리콜레토' 중 '여자의 마음', 베르디의 '팔스타프' 중 '꿈인가 생시인가', 구노의 '파우스트' 중 '정결한 집', 카타리니의 '라 발리' 중 '그렇다면 멀리 가지겠어요', 로시니의 '렝스로 가는 길' 중 '나는 돈 프로폰도' 등이다.

피날레 무대는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투우사의 노래' 등 비제의 '카르멘' 모음곡이다. 그린발레단 김가령씨가 함께 무



지휘·해설 박승유 소프라노 박계

대에 선다.

조선대 교수로 재직중인 소프라노 박계씨를 비롯해, 테너 추현우, 바리톤 안민수씨가 출연한다. 전석 1만원, 사랑티켓 3000원. 문의 062-960-898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능기부' 특강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용관)은 26일 오후 5시 세계광엑스포주제관에서 재능기부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특강에서는 호남대 안태근 교수가 '한국영화100년사'를 주제로 이야기할 예정이다. 안 교수는 한국영화의 역사, 활동 사진의 시작과 배경, 그리고 초기 영화사의 비하인드 스토리 등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이번 특강은 세계광엑스포주제관의 공공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산업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문의 062-372-0551.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안태근 교수



## '소리치다' Fun한 소리 공연

### 28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젊은 소리꾼들의 모임인 창극 프로젝트 '소리치다'가 광주 서구청이 진행하는 목요일국악 한마당 무대에 선다. 28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

'Fun한 소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판소리 '사랑가'를 시작으로 25원 가요 병창곡 '아리랑연곡', 창작 판소리 '흥부와 놀부', 국악체험 민요부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창극프로젝트 '소리치다'는 전통예술인 판소리를 기반으로 민요, 정가, 연가, 뮤지컬, 영상, 무용 등 다양한 예술을 접목시킨 작품을 선보이는 그룹이다.

목요일엔 국악한마당은 판소리, 가요, 관현악 등 다양한 장르의 국악 공연을 선보이는 무대로 지금까지 56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전석 무료. 문의 062-350-45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시립미술관 소식지 30호 나왔다

광주시립미술관 소식지 30호가 나왔다. 이번호에는 본관에서 열리고 있는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프로젝트 '달콤한 미술-1980 그후'와 어린이갤러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알록달록 그림책 놀이' 등 전시가 소개됐다.

또 구례 출신 북한 국적 화가 이건의 초대전 '너라도 가거라'와, 지난 22일 개막한 아시아 창작공간 네트워크 '아시아 민주주의의 거울과 모니터'전에 관한 전시 정보도 실렸다. 리뷰 코너에는 하정웅 컬렉션 '벤산-기억하는 눈, 기록하는 손', 중동현대미술특별전 '상실과 사랑에 관하여', 변종근 '되돌리다'전에 관한 해설 등을 만날 수 있다.문의 062-613-7100.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가입문의 1855-0000



# 헬로tv, 세계 최초 UHD 방송 시작!

**헬로tv UHD 방송 가입하시고 24시간 초고화질 세계를 마음껏 경험하세요!**

-  **24시간 UHD 전용 채널**  
유맥스(UMAX, ch.1)에서 다양한 UHD 콘텐츠를 시청가능
-  **UHD VOD 시청**  
초고화질의 UHD 콘텐츠를 VOD로도 시청가능
-  **16만 편의 영화·드라마 VOD**  
국내 최대 VOD콘텐츠를 보유한 헬로tv와 동일하게
-  **셋톱박스 없이 시청가능**  
삼성UHD TV에서 스마트TV앱만 설치하면 셋톱박스 없이 시청가능

\* 2014년에 가입하시면 가입 후 1년간 UHD 이용료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헬로tv UHD 상품은 '14년 3월 이후에 출시한 삼성의 UHD 스마트TV에만 지원됩니다. '14년 3월 이전 출시 상품 구매자께서는 삼성전지에서 판매하는 '14년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청가능하오니 이 부분은 삼성전지에 문의주세요. (삼성전자 고객센터 : 1588-3366)



헬로tv UHD방송이란? Full HD 보다 4배 이상 화질이 좋은 초고화질 방송 서비스

www.cjhellvision.com